

홈 > 뉴스 > 정치/행정

대전문화재단은 정치세력?

'임원진 규모 두배 확대' 박시장 측근 포진', 선진당-정치적 압력 자제 촉구

2009년 09월 16일 (수) 14:08:56

안희대 기자 ✉ ten6263@yahoo.co.kr

대전시가 100억 원을 들여 출범시킨 '대전문화재단'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문화재단을 정식 출범시켰지만 임원진 인선이 발표되자 박성호 대전시장이 내년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친정체 제구축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문화예술분야까지 정치권에서 손을 대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전문화재단 임원진들을 보면 문화 예술과는 무관한 인사들로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에 깊숙이 관여 되어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문화재단 임원진은 총 28명으로 이중 문화 예술계에 종사자는 관계 공무원까지 포함해도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계와는 무관한 비전문인으로 채워졌다는 시각을 받고 있다.

임원진 명단을 살펴보면 지난해 정무부시장에서 물러난 양홍규 변호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의 책임을 지고 공직을 떠난 김영관 전 정무부시장등 친 박성호계 라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시각이다.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 숫자 또한 당초 계획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지난 3월 문화재단설립과 관련된 브리핑을 통해 "대표이사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임원진을 구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여기에 임원진 대부분이 친 박성호 시장 성향의 인물로 채워지면서 문화가 빠진 문화재단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문화재단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자제하라며 임원진 인선을 빗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크게 작용했을 우려를 지적했다.

선진당은 대전시가 사전에 특정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해놓고 당일 발기인대회가 끝나자마자 총회를 열어 서둘러 인선을 했다 며 대전의 문화예술을 위한다면 향후 재단에 대해 정치적 압력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전시의 문화재단 출범을 놓고 실질적인 주인공인 문화 예술인들은 못마땅 하다는 눈치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가 A씨는 "문화재단 임원진을 보면 누구를 위한 문화재단인지 모

르겠다”며 “문화예술을 손에 넣고 주물럭 거리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의 오랜 시각이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대전이 예술의 불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 선거를 8개월 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가 100억원을 들여 설립을 추진한 대전 문화재단이 자칫 선거용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당초 대전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 창조도시 대전 구현’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설립 초기부터 임원 구성을 놓고 사조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현재 100억원의 출자금으로 출발한 대전문화재단을 향후 5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실성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단은 대전시의 위탁사업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발주의 사업도 수주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방침이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 시행되는 문화예술 행사등을 관장 할 것으로 보여 막대한 이권이 개입될 요지가 크다.

이사장 (대전광역시장) 박성호

이 사 (민족예술인총연합회지회장) 김백경, (문화연대공동대표) 김선미, (전 정무부시장) 김영관, (오원화랑대표) 김진원, (한남대총장) 김형태, (자원봉사연합회장) 남재동, (문인협회장) 류인석,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장) 리현석, (전 배재대총장) 박강수, (플랜트치과원장) 손외수, (라이온스총재) 손중호, (주부교실시지부회장) 송병희, (대전프리벨회장) 안기호, (전 정무부시장/변호사) 양홍규, (시의회 행자위원장) 오정섭, (걸스카웃대전연맹장) 윤인숙, (계룡병원장) 이상걸, (계룡건설회장) 이시구, (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시성, (전 원자력연구원장) 장인순, (대전문화포럼대표) 장정민, (문화원연합회장) 조성남, ((주)선양회장) 조웅래, (한국예총대전연합회장) 최남인, (대덕산업단지공단이사장) 최상권

감 사

(공인회계사회장) 김종구, (시 문화예술과장) 이창 구